

2024  
가을호

vol.161



엔젤스헤이븐은 모든 아동과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 목차

대담 2024 어른의 자격 <u>3</u>	How I Walk 우린 모두 정상인이예요. 조금 특별할 뿐이죠. <u>12</u>	타조장학 더 특별한 타조 장학증서 수여식 <u>18</u>
How I Walk Every Step Counts <u>6</u>	국제개발협력 캄보디아에서 펼쳐진 감동의 마라톤 <u>14</u>	엔젤스헤이븐 뉴스 <u>20</u>
How I Walk 한계를 넘어 도전하다! <u>8</u>	자립준비청년 나 '홀(whole)로' 산다 <u>16</u>	

2024년 가을호(계간 통권161호)

등록번호 서울라08331 등록일 1997년 12월 9일 발행소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엔젤스헤이븐 후원홍보실 02-357-1701 [www.angelshaven.or.kr](http://www.angelshaven.or.kr)

발행일 2024년 10월 11일 발행인 조준호 편집인 엔젤스헤이븐 후원홍보실

디자인 더디앤씨 [www.thednc.co.kr](http://www.thednc.co.kr)

엔젤스헤이븐 소식지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www.angelshaven.or.kr](http://www.angelshave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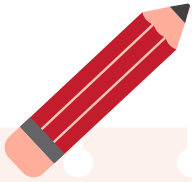
또는 전화(02-353-9370)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어른의 자격

서울신문 [세계 청소년의날 대담]  
김성은 기자, 홍희경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절반이 2000년대생이다. 이 말은 이번 올림픽에서 청소년들이 한국 메달의 절반을 따냈다는 얘기와 같다.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주로 19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보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선 초기 청년인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본다. 탁구에서 메달 2개를 추가한 ‘빠약이’ 신유빈(20) 선수부터 배드민턴 금메달 안세영(22) 선수까지 청소년기본법 대상 연령에 해당한다.

‘파리 올림픽 황금세대’로 일컬어지는 이 세대는 ‘경기 매너’에서도 기존과 다른 모습으로 주목 받았다. 한일전에서 지고도 상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경의를 표했고, 금메달을 받은 뒤 소속 협회에 대한 비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 역시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적절하게 기울여 왔을까. UN이 정한 세계청소년의 날(12일)을 맞아 수십 년째 청소년 권리 보호 활동을 펴 온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와 권일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의 대담이다.

“586세대 중심으로 심각한 교육계 카르텔 깨야…

**청소년 정책 시행 이후 제도 효과 확인 필요”**

위기 청소년 문제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공교육이 붕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호 초, 중, 고 학생 수는 1999년 800만명이 넘었지만 지난해 520만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아이들 수는 줄었는데 교육부 예산은 20년 동안 4배 가까이 뛰었다. 학생 1명에게 돌아가는 교육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까지 나오는 건 늘어난 예산이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모두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는 불필요한 사업에 투입되기도 한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586세대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권일남 우리 사회가 문제를 발견하는 데는 탁월한 능



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선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매일 뉴스에서 교육과 복지 분야 다양한 기사가 쏟아진다. 비판의 목소리도 끊임없다. 문제를 인식하는 게 해결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이는 분명 긍정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고 있다는 거다.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선 매우 소극적이다. 위기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기보다 예산을 편성해 관련 기관과 인력을 투입하고는 딱 거기서 멈춘다. 정작 문제가 해결됐는지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감축은 근시안적 결정… 장기적으로 K팝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줄 것”**

예산 문제도 있지 않나. 정부가 올해부터 '117 학교폭력 상담센터' 예산과 청소년 활동 지원 정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조준호** 어떤 제도가 자리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꾸준히 운영돼야 한다. 117 상담센터도 이제 10년이 넘으면서 자리를 잡는 단계였는데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예산을 없앤 거다.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을 감축한 것 역시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이 예산은 청소년 동아리와 같은 민간 단체에 보조금으로 투입된다. 별일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예산이 투입된 덕분에 K팝이 꽃피울 수 있었다. 예산 지원을 받는 민간 단체를 토대로 K팝 근간을 이루는 많은 연습지원생이 성장해

무대에 올랐다. 반정부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 동아리 몇 곳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없앤 거란 얘기도 나온다.

**권일남** 동감한다.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은 그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예산 규모도 불과 38억원으로 크지 않다. 작은 예산이지만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에 소중하게 쓰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액 삭감된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당장 예산 삭감의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K팝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 정부 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청소년 정책이 더욱 위면받는 거다.

**“어른들이 위기 청소년들에게 좋은 롤모델 돼야… 진정성 있게 다가갈 때 아이들 행동도 바뀐다.”**

위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권일남**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만한 지도자들이 위기 청소년들을 끝까지 놓지 말고 지지해주는 거다.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어른들이 나를 보호하고 응원해 준다는 심리적 지지를 받는 경험이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어른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대해 때일수록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어른들이 위기 청소년

년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건 아닌지, 되레 그 기회를 차단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조준호** 우리나라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되레 피해를 입는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는 풍조가 퍼진 것 같아 씁쓸하다.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에게 호통을 쳤다가 되레 봉변당했다는 기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른들이 위기 청소년을 방치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야단치고 꾸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한다. 어른들이 위기 청소년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때 아이들 행동도 바뀔 거라고 확신한다.

“더 좋은 미래’ 그릴 수 없다는 시대적 고통…”

‘학업 실패자’ 몰지 말고 성장 지원해줘야’

어른들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조준호** 30~40년 전만 하더라도

200만원 보증금의 반지하 월세

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

는 친구들이 있었다. 성실

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다.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얼마든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결혼 자금 800만원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다. 직장 생활로 서울에 집 한 채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더 좋은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바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시대적 고통이다. 집 값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숫자에 매달리는 사회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지난해 3만 4000달러 수준이었는데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어디에 사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가 행복의 척도로 여겨져선 안 된다. GDP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권일남** 올림픽에서도 우리는 주연과 조연을 설정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은 주연으로,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조연으로 남았다. 은연중 우리의 인식 속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회로가 공고하게 자리 잡은 거다. 학교는 이런 회로를 주입하는 곳이다. 학업으로만 동기를 유발하다 보니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 몇몇을 제외하곤 모두 실패자가 된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1등을 할 수는 없지 않다.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줄 수는 없다. 학업 실패자가 아니라 당당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각자가 세운 목표에서 뭔가 부족하다며 어른들이 옆에서 조언해주고 지지해줘야 한다.



# Every Step Counts: 세상의 모든 걸음을 응원합니다

##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제4회 How I Walk



###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애인식개선 기부 마라톤, 모든 걸음에 응원을!

엔젤스헤이븐은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부터 지속해 개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How I Walk는 단순히 걷고 달리는 행위를 넘어, 나와 우리의 걸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듯이, How I Walk 마라톤은 사람마다 걷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또 모든 걸음이 '걸음'이 되도록 거리의 모습도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의미에 더해 내 걸음을 기부하는 기부마라톤으로, 마라톤 수익금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꼭 필요한 치료가 멈추지 않도록 장애 어린이의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고, 비장애 형제의 장학금, 가족의 생활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 패럴림픽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파리올림픽이 열린 2024년, 올림픽이 끝나면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알려진 패럴림픽이 시작되는데요. 몸의 불편함으로 '장애'를 말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걸음을 응원하는 How I Walk와 장애인 선수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경기인 패럴림픽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2024 How I Walk 러너님들과 함께 패럴림픽 선수들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에 비해 패럴림픽은 비교적 중계방송이나 기사가 적고, 사람들의 관심도는 적은 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2024 How I Walk를 통해 패럴림픽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림픽'하면 떠올리는 로고와 패럴림픽 로고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패럴림픽 로고는 '아지토스'라는 이름으로, 라틴어로 "나는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지점을 둘러싼 모양으로 움직임을 상징하고, 전 세계 선수들이 모여 경쟁을 펼치게 해주는 패럴림픽 무브먼트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패럴림픽



올림픽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럴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치아, 사격, 탁구 등 종목에서 메달을 꾸준히 획득해왔습니다. 메달권이 들지 못했어도, 또 한 번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모든 선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만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시작한 How I Walk 마라톤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풀리면서 만나서 함께 하는 행사를 찾는 러너님들이 많아졌습니다. 1회 How I Walk 때, 소규모로 100명이 모인 대면 마라톤 이후로 러너님들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특별한 행사로 러너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크로스핏 기반의 경기를 할 수 있는 ADAPFIT GAMES와 두 번째, 대화 주제로 꺼내기 어려웠던 ‘장애’이야기를 유쾌한 영화 <챔피언스>와 유명 연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장애인식 개선 무비토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엔젤스헤이븐이 열심히 준비한 How I Walk 대면 행사들의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교육자료를 통해 장애에 대한 교육을 접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생각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첫째, 장애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장애 자체보다도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장애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계단이나 적절한 경사로가 없는 건물은 장애를 더욱 심화시키는 환경적 장벽입니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배웠습니다. 교육자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강점을 살려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는 보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결코 도움을 받기만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언어와 태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표현하는 용어나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장애인이 무의식적으로 차별적이거나 무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보거나 동정하는 시선은 오히려 장애인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인정하는 언어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교육을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장애에 대한 제 인식이 확장되었고, 장애인을 대할 때 더 민감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후기, 조○규 러너

# 한계를 넘어 도전하다!

2024 ADAPFIT GAMES

1







몸의 불편함으로 장애를 말하지 않는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이번 4회 How I Walk 마라톤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ADAPFIT GAMES 배리어 없는 피트니스 게임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크로스핏 기반의 경기입니다.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 Far East Throwdown, 오토복, 와드프렌즈, 서부재활체육센터가 엔젤스헤이븐 How I Walk 마라톤과 뜻을 함께해주었습니다.

몇 달 전, 선수들은 참가 신청을 하고 다시 한 번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9월 8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엔젤스헤이븐 산하기관 서부재활체육센터에서 ADAPFIT GAMES 2024 참가 선수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경기에 좋은 의미를 두고, 멀리 강원도와 부산에서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선수들이 내뿜는 열정에 뜨거워지는 현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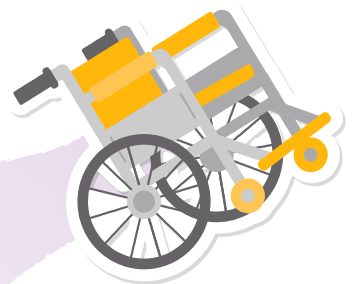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조로 구성되어 4분 경기, 2분 쉼으로 5개의 스테이션을 돌았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션에서 덤벨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행 스내치와 전신 운동 버피를 시작으로 맥스 컬 스키 에그, 배틀로프, 맥스 컬 로우, 행파윙클린, 박스 점프까지 크로스핏 동작들 중 비교적 쉬운 종목들로 구성되었지만 평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땀을 흠뻑 쏟을 만큼 강도 높은 운동이었습니다.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크로스핏 기반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몇몇 동작들을 재편했습니다. 바닥에 가슴을 대었다가 일어나야 하는 버피 동작의 경우, 휠체어에 앉아 박스의 네 모서리를 손으로 터치하고 이동하기를 반복하는 동작으로 변경하고, 박스 점프 동작은 의족을 착용한 선수가 박스에 앉아 양 쪽으로 돌아 앉는 동작으로 변경했습니다.

배리어(barrier 장벽)를 없애고 동일한 트랙에서 비장애인 선수와 휠체어 이용 선수, 의족 착용 등으로 일어서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해서 쉬운 동작이겠지 생각이 드셨다면, 엔젤스헤이븐 유튜브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해 주세요. 크로스핏이라는 경기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스며들도록 강렬한 경기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How I Walk 홍보대사 파라아이스하키 한민수 감독님과, 유튜브 ‘아직 한 발 남았다’ 화니님, 크로스핏 세미파이널 변은체 선수님, 와드프렌즈 엠베서더 양승혜님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경기를 시작하며 열기를 더해주었습니다. 특히 한민수 감독님은 의족을 착용하고도 평소 꾸준히 해오던 운동 실력을 보여주어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평소에 웨이트를 하니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 정도 가니까 완주를 목표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엔젤스헤이븐에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리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마지막이다 했는데 이제 숨이 돌아오니깐, 다음에도 이런 좋은 행사에 꼭 참여하겠습니다. 엔젤스헤이븐 파이팅! 파라아이스하키 한민수 감독



ADAPFIT GAMES ‘대회’인 만큼 사상도 빠질 수 없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ST: 스탠딩기능 / SI: 휠체어(의자) 이용 / BA: 기본 부분으로 나뉘어 각각 측정한 점수로 등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각 부분별 1, 2, 3등은 가렸지만, 이전 자신의 기록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모든 참가자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돌아가는 시간까지 에너지 넘치는 얼굴로 각자의 승리를 마음껏 즐겨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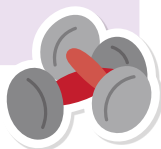
엔젤스헤이븐에게 많은 부분이 처음이었던 대면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봉사자분들입니다. 마라톤과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봉사자(저지)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가 선수들보다 일찍 경기장에 모여 저지 교육을 받고 각자 맡은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선수들은 경기중 상체로 많은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엎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뒤에서 휠체어를 꼭 잡아주고, 이런 운동을 처음 접하는 발달장애인 선수에게는 직접 동작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선수들의 운동을 위해 힘써주었습니다. 선수들보다 많았던 스태프들이 이날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안전한 경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힘을 써주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올해 세미파이널 봉사자를 했었는데,  
메일이 왔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크로스핏 대회가 있는데 봉사할  
생각이 있냐고. 원래도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장애인들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봉사자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봉사자 크로스핏 톱 신현석



이날의 ADAPFIT GAMES 2024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  
지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장애인 운동'을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다소 정적인 이미지와 상반된 역동적인 움직  
임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운동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어떤 교  
육자료보다 한 번의 경험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  
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행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린 모두 정상인이에요. 조금 특별할 뿐이죠.

## 장애인식개선 무비토크: 챔피언스

2024 How I Walk 마라톤의 두 번째 대면행사로, 장애인식개선 무비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장애’라는 것이 나의 가족, 나의 일자리 등 나와 가깝지 않으면 가끔 TV 뉴스를 통해 듣는 불편하거나 무서운 이야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 주제로 꺼내기 어려웠던 ‘장애’ 이야기를 유쾌한 영화와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다가가기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께 본 영화는 2018년 스페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챔피언스>입니다. 프로 농구 코치인 마르코스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지적 장애인 농구팀 ‘프렌즈’의 감독을 맡게 되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벽이 허물어지며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렌즈 팀을 포기하겠다는 마르코스는 점점 친구가 된 프렌즈팀의 우승을 위해 열심히 훈련시키는데...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영화는 배우들이 장애를 연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연기자들과 함께 촬영하여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훈련과 배움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드는가 동시에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동작과 대사들을 외우고, 긴 시간 촬영까지 해냈던 출연자들입니다. 무비토크에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챔피언스> 영화는 꼭 한 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이화여자대학교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How I Walk 러너님들을 또 한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전부터 하나 둘 모였습니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장애에 대한 간단한 사전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는 차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장애인을 대할 때에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는 질문에서는 여러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사전 질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예전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평소 장애인과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미와 감동이 함께했던 <챔피언스> 영화를 관람하고, 바로 토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일의 휴가>, <나의 특별한 형제>의 감독 육상효님, 언어치료사 김현주님이 연사로 참여해주었습니다.

“이 영화를 여기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버스와 비행기에서 대조되는 장면이 인상깊었습니다. 버스에서는 사람들이 장애를 일부러 못 본체 하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면, 비행기에서는 승객이나 승무원이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비행기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내릴 수 없는 여정, 끝까지 ‘함께’ 가야죠.”

육상효 감독

“장애 아이의 어머니들을 많이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암에 걸린 사람들이랑 같은 말이에요. 내 아이가 장애가 있을 지 몰랐다고 말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는 것에 공통점이 있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또, 우리애가 뭘 할 수 있을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영화와 ‘나의 특별한 형제’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장애인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주 언어치료사



감독 육상효님과 언어치료사 김현주님의 토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사후 설문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했던 지난 나의 행동들이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장애인은 혼자서 못 할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려고 합니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한 걸음을 내딛은 <챔피언스> 무비토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캄보디아에서 펼쳐진 감동의 마라톤





### 국내 NGO 최초

### 해외 마라톤 후원 여행 프로그램

엔젤스헤이븐이 국내 NGO 최초로 기획한 해외 마라톤 후원 여행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8월 초, 후원자님들과 함께 캄보디아 시엠림(Siem Reap)과 바탐방(Battambang)을 방문해 5박 7일 동안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앙코르와트 국제 마라톤에 참가하고, 캄보디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엔젤스헤이븐의 협력 기관인 캄보디아 Phare Ponleu Selpak(이하 'Phare') 예술 및 서커스 학교의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현지와의 교류를 통해 도움을 주는 공정여행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후원 여행 참가비의 일부는 캄보디아 아동·청소년 교육 사업에 후원될 예정입니다.

### 앙코르와트를 달리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희망의 레이스

이번 여행 프로그램에는 장애인 후원자님도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엔젤스헤이븐의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인 은평재활원의 한인수 씨가 후원자로 동행했습니다. 평소 달리기와 마라톤을 좋아하던 한인수 씨는 10km 마라톤을 가뿐하게 완주하며 '잘 하는 것에 집중하는' 희망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후원 여행에 참여한 모든 후원자님들은 세계 최대 사원인 앙코르와트 주변을 달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완주 목표에 뛰었습니다. 아름다운 앙코르와트의 풍경 속에서 함께 흘린 땀은 모두의 완주로 이어져, 기쁨이 배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리는 이곳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학교의 역할을 느끼고, 학생들이 만든 정교한 작품을 감상하며 캄보디아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앙코르와트 복원 작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탐방에 위치한 비영리 예술학교 ‘Phare’ 방문도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Phare’는 예술, 교육,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캄보디아의 밝은 미래를 이끌고 있으며, 엔젤스헤이븐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학교답게 우리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을 감상하고, 음악실에서 캄보디아 전통 악기를 체험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Phare’ 졸업생들이 선보인 서커스 공연은 청년들의 넘치는 열정이 돋보였으며, 그들의 노력과 재능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을 맛보고,  
캄보디아의 매력에 빠지다**

세계적인 유적지인 앙코르와트에서 국제 마라톤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킬링 필드를 방문하여 그들의 아픈 역사를 배웠고, 톤레삽 호수와 수상 가옥촌, 그리고 맹그로브 숲을 탐험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특히, 아티산 앙코르 예술학교를 방문하여 캄보디아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 최초의 직업학교인 아티산 앙코르 예술학교는 캄보디아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목공, 석공, 금속공예 등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

**함께 달린 꿈, 함께 만들어갈 미래**

엔젤스헤이븐의 제1회 캄보디아 마라톤 후원 여행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후원자님들과 캄보디아 아이들의 꿈을 이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마라톤 후원 여행을 통해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레이스 현장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힘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는 엔젤스헤이븐과 함께 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나 ‘홀(whole)로’ 산다

## JB우리캐피탈과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매년 약 2,400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자립준비청년 수는 총 11,403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수는 1,508명이고, 그 중 은평구 자립준비청년은 221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대비 약 4배의 자립준비청년이 거주 중입니다.

시설에서 나와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살하는 사건들로 사회적 관심이 주목되었고,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사후관리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50%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중 33%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초반에는 지원금으로 자립할 수 있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일과 주말, 두 번에 나누어 JB우리캐피탈과 함께하는 금융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일 22일 13명과, 주말 31일 4명, 총 1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했습니다.

다.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유란 이사와, 조금득 이사가 진행해주었습니다. 여러 자립준비청년이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재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잘못된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관리를 잘 하지 못해, 계속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 않도록, 금융 상품/대출에 대한 교육, 신용 및 부채 관리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시간동안 집중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재정을 관리해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돈을 잘 쓰는 법을 막연히 돈을 아끼며 적금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융교육을 통해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계부를 쓰면서 내가 돈 쓰는 습관, 소비를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꾸준히 가계부를 쓰면서 내 소비습관을 점검하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더 특별한 타조 장학증서 수여식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교육”이라 믿었던 엔젤스헤이븐의 초대 설립자인 존 조셉 타이스 선교사와 조규환 회장의 이름은 딴 타조장학회는 2013년부터 장학금 지원을 시작해 올해로 1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조장학회는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기 않도록,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 2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토요일, 서부재활체육센터 르네상스홀에서 반가운 타조장학생들을 마주했습니다.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29명, 대학생 23명, 총 62명의 2024년 타조장학생 중 46명이 모였고, 장학생 부모님과 장학회 관계자 등 총 82명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큰 행사였습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을 많이 기다렸다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바로, 2019년 장학증서 수여식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5년 만에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장학증서 수여식에 타조장학회 졸업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과 비전에 대한 강연을 해주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모니가 합창단과 서울대학교 마술동아리 ‘몽환’도 타조장학생들을 응원하는 공연으로 보는 재미, 듣는 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앞선 진행들로 한껏 밝아진 분위기에서 장학증서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어 앞으로 나가서 장학증서를 받고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장학증서 수여식 참여자 한마디

“장학증서 수여식에 다녀와서 진로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졸업생 강연을 듣고, 나도 타조장학금으로 내 미래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대학 꼭 합격하겠습니다!”

타조장학생 유민(가명)이는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미혼모로 출산했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머니마저 유민이를 외할머니댁에 맡겨놓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유민이는 건강이 좋지 않은 외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민이 외할머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선행을 베푸시며 이웃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 계셨습니다. 유민이는 이런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삶을 배우고 꿈을 키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어릴 적,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친구들과 가족 구성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소심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타조장학회는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꿈을 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소속기관소식

은평천사원

한국엡손과 함께하는 “문화의 날”



지난 8월 29일 한국엡손의 후원으로 “문화의 날”을 보냈습니다.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는 한국엡손 사장님께서 아동들에게 개별 선물을 전달하고 미디어아트 전시를 관람했으며, 어린이대공원에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년 은평천사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값진 체험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시는 한국엡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h'늘함께지역아동복지센터

2024 여름캠프



8월 8일부터 9일까지 가평으로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짙은 날씨 아래 시원한 물줄기와 물썰매의 바람을 느끼며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저녁으로는 다 같이 모여 바비큐와 마시멜

로를 구워 먹고 불꽃놀이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는 아이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었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오늘의 즐거운 추억을 오래 기억하며,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평재활원

‘KIADA 2024 제9회 대한민국장애인국제제무용제’ 참여



‘KIADA 2024 제9회 대한민국장애인국제제무용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문화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개최되고, ‘춤추는 은평재활원’은 8월 16일에 ‘가능한 춤 2024’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무대에서 음악에 몸을 맡기고 웃음과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무용에 도전하고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연습과 용기가 필요했을 ‘춤추는 은평재활원’ 무용단원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

즐거움이 가득했던 여름 여행



8월에는 모든 이용자가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개 팀으로 나누어 강화도, 가평, 산정호수, 속초 등 다양한 장소를 여행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영장이 있는 펜션에서 물놀이를 하고, 야외에서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물놀이 외에도 잔디 인형 만들기, 선상 체험, 손수건 만들기와 초콜릿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하여 더욱 유익하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은평자립준비청년청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모험, 자립을 위한 첫걸음



은평자립준비청년청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경청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6월 한 달간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으

로 개인별 진로적성검사와 1:1 모의면접, 원하는 직종(서비스직, 사무직, 사회복지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직접 견학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사업체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총 1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은평구 내 13개 업체에 배치되어 자신만의 일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은평대학교**

**SK이노베이션과 함께하는  
'Happydream-1'**



9월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유치·초등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학생들이 SK이노베이션과 함께하는 'Happydream-1'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현장학습 및 스포츠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Happydream-1' 프로그램은 SK이노베이션이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활동비 지원은 물론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모자가족자활센터 흰돌회**

**입·퇴소 어머니들의 자조모임  
'모람모람' 진행**



입·퇴소 어머니들이 아버지 봉사단의 아동교육활동과 맞물려,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숨을 돌리고, 어머니들과 오순도순 모여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유익한 정보도 나누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공유하며 자아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마음충전소**

**[지역사회로 나간다: 나답게, 가깝게,  
다함께] 활동보고서 발간**

'나답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과 '가깝게'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함께'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평에서 함께하는 정신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담은 보고서, 많은 관심과 열람 부탁드립니다.



**은평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성인발달장애인의 개별화지원을 통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좋은 날”**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4년 나눔네트워크 지역특화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맞춰 심리정서, 신체건강,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요트, 아쿠아리움, 레일바이크, 등산, 바리스타 체험, 제빵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개별화 지원으로 이용자들이 만족감을 느끼며 즐거움의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정겨우리주간보호센터

도전! 바리스타



정겨우리는 은평구 지원으로 7월부터 커피 학원에서 카페 메뉴 만들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커피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모두 집중하여 정말 잘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순서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손을 들어 음료를 먼저 만들고 싶다고 표현하는 등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아하는 활동으로 모두의 행복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누야하우스

장애인 자녀를 위한 미래 준비



누야하우스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부모교육은 장애인 이용자 및 보호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 식탁과 공공 후견에 대해 다루며 장애인 자녀의 미래, 재산 관리, 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

호자분들은 장애인 이용자, 즉 자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재활병원

재활 시 챗봇 아이디어 해커톤 성료



서울재활병원 기능연구센터(센터장 전인표)가 올해 처음 개최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및 건강한 일상생활을 돕는 AI 챗봇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97팀 168명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온라인 예선과 본선을 통해 선정된 10개 결선 진출팀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아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실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로 모두 구현해 냈습니다. 이번 해커톤으로 필요와 기술이 만나는 현장을 보게 되었고, 해커톤을 마중물로 하여 향후 장애와 재활에 대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해 내는 과정을 통해 재활의 발전과 장애인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뇌병변 장애청소년을 위한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 캠프 개최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서울재활병원이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뇌병변 장애청소년을 위한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하 꿈.찾.사)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꿈.찾.사’ 캠프는 강원도 강릉, 정동진 일대에서 장애청소년이 보호자를 떠나 또래와 함께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사회 활동 참여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프 미션 완성이, 일출 보기, 레일바이크 타기 등으로 강릉 명소들을 함께 둘러보며, 장애청소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부재활체육센터

제4회 은평구청장배 어울림 수영대회



은평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부재활체육센터가 주관하는 ‘2024년 제4회 은평구청장배 어울림 수영대회’가 7월 21일 서부재활체육센터 3층 수영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수영대회는 선수와 보호자 및 행사 진행요원 총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을 장애인부와 비장애인부, 남/녀 초등, 성인, 시니어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과 응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즐거움과 감동이 전달되는 수영대회였습니다.

**은평보호작업장**

**우리의 특별한 여름캠프**



지난 8월 1~2일 이용인분들과 함께 제 부도에 있는 독채펜션으로 1박 2일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수영, 레크레이션 등으로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고, 바비큐 파티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이용인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능력향상과 사회공동체 의식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북돋았길 바라며, 앞으로의 자립을 위해서도 많은 응원 바랍니다.

**서울시립은평청소년센터**

**‘2024년 서울-진안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운영**



시립은평청소년센터에서는 ‘서울 지역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으로 전북 진안군과 교류하여 서울시와 진안군의 청소년이 역사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서울과 진안에서 각각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진안에서는 진안의 명물인 마이산 인근 역사탐방, 메기잡기 등을 체험했고, 서울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롯데월드 등을 즐겼습니다. 서로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갈현노인복지관**

**갈현1동 새마을부녀회 연합 초복행사 「초福 건강밥상! 삼계탕 드시고 건강하세요」**



초복을 맞이하여 갈현1동 새마을부녀회와 연합하여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및 복지관 이용 어르신 250여명에게 초복 삼계탕 특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초복 행사로 건강한 식생활 유지와 지역교류를 기반으로 한 전통 문화 계승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갈현청소년센터 심심**

**제5회 은평구 청소년 e스포츠대회 페어플레이 은평 개최**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은평구 청소년 e스포츠대회’는 7월부터 예선과 본선 경기를 거쳐 8월 24일(토)에 롯데몰 은평점에서 다채로운 체험부스, 이벤트와

함께 결승전을 진행했습니다. 은평구 청소년 e스포츠대회는 은평구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해 건전한 e스포츠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새로운 여가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디지털부문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갈현청소년센터는 e스포츠대회를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관우리동네키움센터**

**친구들과 함께 달콤시원한 뮤지컬 관람**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으로 진행되는 “우당탕~! 신나는 뮤지컬n댄스” 프로그램 연계활동으로 어린이 뮤지컬 ‘수박 수영장’을 관람했습니다. 처음 뮤지컬을 경험한 아동, 흥겨운 음악에 즐거웠던 아동, 외부활동에 설레던 아동. 모두가 신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 엔젤스 나눔가게



**자립준비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엔젤스 나눔가게 사업장을 기다립니다.**

월 정기후원 2만 원 이상, 사업장 이름으로  
자립준비청년의 꿈을 위해 후원해주세요.